

##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말씀: 마태복음 9:18-38

요절: 마태복음 9: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6가지를 살펴보았고, (나병환자를 손을 대서, 백부장하인 말씀으로, 베드로장모 열병,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 거라사귀신 고쳐주심, 4친구가 데려온 중풍병자) 오늘 말씀에는 네 가지의 기적사건이 더 나옵니다. 왜 기적을 10가지나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랑하실려고 그러실까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어마어마한 전력공급소가 있는데 이 전력공급소에 연결된 콘센트에 코드를 꽂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꽂으면 어떻습니까? 선풍기, 에어컨도 돌아가고, 마이크방송도 나오고, 전기가 있으니 예배를 유튜브로 드릴수도 있고, 전세계로까지 전파하고, 이 외에도 수만가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대한 전력공급소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적을 체험한 4명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 딸이 방금 죽은 관리, 앞 못 보는 맹인,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방법들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아와 절하며 간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뒤로 몰래 나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며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온 방법은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은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그럴때 예수님은 그들 각자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그들의 믿음대로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만 우리의 믿음에 기초해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러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믿음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I.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18-22)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나아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아이로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절을 하며 간구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딸이 죽어 버렸으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딸이 살았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죽었으면 ‘이제 끝났다’ 절망하며 모든 소망을 끊고 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마 이 딸이 방금 숨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호흡이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일어나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촉박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혈루증은 계속해서 하혈하는 부인병입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여기는 병입니다(레15:25-30). 여인이 앓은 곳도 부정하고, 손대는 것도 모두가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손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와서는 안됩니다. 앞에 나왔던 관리는 자기 딸이 죽은 절박한 사정이지만 그래도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정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해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몸에 손대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손이 여인에게 닿으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여인에게에는 예수님이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무슨 기발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겹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뒤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체를 만질 수 없으니 겹옷만 만졌습니다. 겹옷가만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땅바닥에 끌려다니는 옷에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은 자기 마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 뒤에서 겹옷만 만져도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문둥병자처럼 내가 원하노니 하며 안수기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니까 그 능력이 아마 옷에도 흘러 넘칠 것이다, 그래서 그 겹옷에만 살짝 손을 대도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12년동안 앓은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이걸 믿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창조적이고 기발한 생각입니까? behind, just one touch. 뒤에서 잠깐 터치하는 것.

just one touch!! touch 하니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touch 하는게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터치하시죠? 스마트폰은 손가락으로 잠깐 터치만 하는데 사진도 찍고, 카톡도 보내고, 은행업무도 다 됩니다. 이 핸드폰 하나로 just one touch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20년 전만 해도 전화기는 전화외에는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유선으로만... 그런데 어느순간 무선전화기가 나와서 들고다니더니만 이제는 터치로만 다되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하이테크의 세계를 넘어서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스마트 폰도 한 번의 터치로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스마트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터치만 되면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몰래 코치해 준것도 아닙니다. 여인이 자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하이터치의 원조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엄청난 역발상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의 믿음은 창조적인

, 기발한 믿음입니다. 이와같이 그 마음에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발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간절히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모임이 중지되어 모일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거스틴 목자님은 포기하지 않고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줌 프로그램에 터치해서 온라인상으로 모이게 해서 말씀공부도 하고, 동역자모임도 하고, 모두 포기하고 있는 여름수양회도 추진해 불려고 계획하는 모습을 통해 목자님이 믿음이 있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역사는 뭘 모여야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하면서 불이 붙는데요... 그러나 역발상으로 창조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모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주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UBF 목자님들이 ZOOM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모여서 코로나세계에서 어떻게 복음역사, 선교역사를 섬길것인지 토론했습니다. 올해 요절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사43:19)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예비하시고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찾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길을 찾고 나갈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임이 그동안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있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high touch로 모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touch함으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한계를 모르는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또 어떻게 아셨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몸에 손을 댄것도 아니고 옷에만 손을 댔기 때문에 느낄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줄을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적극적으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딸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my daughter. 내 딸아 안심하라~ 지난주 중풍병자에게는 my son 내 아들이 안심하라~ 했는데, 둘다 물골이 말이 아니고 중풍병자는 냄새도 심하게 났을테고 특히 여인은 부정한 손으로 몰래 예수님을 만졌으니 부정한 여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my son~ my daughter~ 내 아들이 내 딸아~ 하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을 절대 모른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아들이, 딸아 하고 기쁨으로 맞아 주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막5:29).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2년 동안 괴롭히던 혈루증이 단 한 번의 터치로 완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엄청난 치료의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영적인 전력소가 되십니다. 한국전력이 아니라 하늘전력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아가서 터치하기만 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과 Touch를 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말씀이신 예수님은 2천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 touch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천정은씨가 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란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분은 2012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통해 좋아졌는데 다시 재발해서 2016년에 폐와 기도 림프절, 온몸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치료 중인데 항암치료를 81차까지 받았습니다. 8년을 암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한 여인과 비슷하죠. 천정은씨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언니의 끈질긴 권유로 성경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읽던 중에 로마서 10:9절 말씀이 심령에 임했다고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신이 말기암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이사야 43: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암도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짝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미친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에 마냥 들뜬 나날을 보냈습니다. 항암치료 중에도 주사바늘이 두렵지 않고, 검사 중에 혈관이 터져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 사진을 찍어보니 암이 갇아먹은 자리에 새로운 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도 사라지고 골반에도 새로운 뼈가 자라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 분은 너무나 감사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간증집회를 다녔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위로하고 부활신앙을 심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분은 성경을 읽을 때 대충대충 읽지 않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뒤로 와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붙든다고 합니다. 그럴때 그 말씀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달되었습니다. 81번이나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열정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나 8년 동안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천정은씨. 둘 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여인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천정은씨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뼈가 생겨났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천정은씨에게도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옆에 놓고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말씀을 펼치고 한 말씀이라도 읽고 필사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져야 할 주님의 옷자락은 지금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힘을 내라. 네 믿음이 너를 승리케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 II. 죽은 소녀를 살려 주신 예수님(23-26)

23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관리의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관리의 딸이 죽었다며 장례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구슬픈 음악을 피리로 불었습니다. 상여꾼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내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불신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잠으로 보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달리달콤’ 말씀하시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까지 살려내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까지 살려내셨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소녀만 살려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녀아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도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살려냈습니다(행9:40).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11:40)”

## III.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27-34)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 보셨습니까? 28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Yes Lord”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맹인들은 단순히 믿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9,30a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두 맹인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이 정말 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만 가지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민11:23)” 하나님은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면 위에 가득차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고기가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자 온 천지에 메추라기가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현실만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제자양성을 과연 할 수 있단 말인가? 모임이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않는가?” 그러나 여호와와 그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면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메추라기와 같은 양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는 역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 보십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주여, 그러하되다” “주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Yes Lord” 믿음의 고백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방법을 찾으면 될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32-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며 예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매도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적으로 눈으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고 그 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루터는 열이 없는 불이 존재하지 않듯이 도전적인 기도가 없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9:29)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한 말씀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야이로 딸에게 나타난 그 기적이, 혈루증 여인에게 나타난 그 기적이, 두 맹인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